

강진군 '불금불파 시즌2' 막 오른다

19일부터 6개월간 매주 금·토...병영주민 주도 로컬 축제 서틀버스 운행·텐트촌 캠핑 장비 대여 등 체류형 관광 추진

강진군이 지역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엔 불고기 파티)가 시즌 2로 돌아왔다.

1일 강진군에 따르면 불금불파 시즌2가 오는 19일부터 10월26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불금불파는 지역 인구소멸 위기를 대거 관광객 유입을 통해 극복하기 위해

민선 8기 강진군에서 처음 선보인 행사로 지역의 역사 문화적 자원을 축제와 함께 엮어 로컬 행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첫 선을 보인 지난해에는 1만3천여명의 관광객이 행사장을 방문, 2억여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이끌어낸 만큼 올해는 반값 가격 관광의 해외 본격적인 운영에 맞춰 먹거리, 불

거리, 놀거리, 즐길 거리 등을 다양화시켜 방문객의 만족도를 한층 높인다는 전략이다. 특히 행사의 주 테마인 병영돼지불고기는 물론, 분식과 음식 매대 4개소를 추가해 새롭게 풍자 바비큐를 도입해 분위기를 살리고, 청년 세프존을 구성해 가족 단위 관광객과 MZ세대의 입맛을 저격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행사를 위해 병영장터, 문화예술마켓, 친환경 자전거 여행, 추억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이벤트를 준비해 관광객을 맞이한다.

특히 지역 어르신들이 손수 기르고

다듬은 정성이 가득한 농산물을 담아 옹기종기 앉아서 판매하는 '할머니 장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군에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광주·강진 간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조산 주차장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다. 병영하멜기념관 인근에 텐트촌을 마련, 캠핑 장비 일체를 대여해 운영함으로써 단순히 일일행사가 아닌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강진원 군수는 "불금불파 행사는 병영부녀회 주도의 불고기 판매와 병영



강진군이 오는 19일부터 10월26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엔 불고기 파티) 시즌2를 선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불금불파 현장 모습. <강진군 제공>

장터문화 한마당, 농부장터 및 할머니 장터 등을 비롯해, 병영주민 주도로 치러지는 행사로 전라병영성 축제와 병영 전통 시장 부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병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진행되는 테마가 있는 한골목길 조성 및 한골목길 열린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해 운영되는 만큼,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정영록기자



전남서부보훈지청, 목포시 후원으로 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교가 주최하는 제23회 '4·8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진행됐다. 사진은 학생들이 노력봉일원에서 '독도는 우리땅' 플래시몹 공연과 독립가가를 제창하는 모습. <전남서부보훈지청 제공>

목포시 '4·8독립만세운동' 재현

전남서부보훈지청·목포정명여자중·고, 시내·노적봉 일대 행진

전남서부보훈지청은 1일 "지난달 30일 목포시와 함께 후원에 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교가 주최하는 제23회 '4·8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4·8독립만세운동'은 1919년 4월8일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해 정명여자중·고등학교, 양동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목포 지역 대규모 만세 시위다.

이날 행사에는 박홍률 시장을 비롯해 이향숙 전남서부보훈지청장, 송인정 전남광복회지부장, 정명여자중·고등학교 학생·교사 및 동문회원 등이 참석해 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교 정명관에서 ▲경과보고 ▲격려사 ▲축사 ▲격문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기념식이 가졌다.

기념식 후에는 독립만세운동 당시를 재현하는 의상을 입은 학생 중심으로

목포 시내에서 거리 행진을 열었다.

행진 중엔 거리의 시민들에게 홍보자료와 1919년 태극기를 나눠주며 당시 독립 운동 모습을 재현했다. 행진이 끝나는 지점인 목포 봄 축제가 열리는 유달산 노적봉에서는 '독도는 우리땅' 플래시몹 공연과 독립가가를 제창해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정명여자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만든 역사 왜곡 항의 포스터가 전시됐으며, 일제만행 사진·자료 전시 체험 학습을 목포근대역사관에 마련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4·8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을 되새겼다. /목포=정해선 기자

해남군 '초콜릿 마을' 조성 본격화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해남 매일시장 등 60억 투입 수제초콜릿 체험·판매 등 가족·연인 성지로 관광 코스화

해남군이 '땅끝 초콜릿 마을'을 지역 브랜드로 내걸고 원도심에 초콜릿 마을을 조성한다.

1일 해남군에 따르면 땅끝 초콜릿 마을은 '연인들의 성지, 초콜릿 체험과 문화가 있는 곳, 땅끝 초콜릿 마을'을 핵심 콘셉트로 한다. 해남읍 상권의 중심지인 읍내리·성내리 일원에 테마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수제 초콜릿 체험장과 판매장 등 거점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상가들은 초콜릿 복합 매장화를 추진하고 신규 창업도 지원한다.

특히 해남군 특산물과 초콜릿을 결합해 해남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수제 초콜릿(사진)을 개발·판매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유입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콜릿을 주제로 한 상권 조성은 전국에서 해남군이 처음이다. 특색 있는 개별 여행을 선호하는 2030 세대와 어린 자녀가 있는 3040 가족을 주 타겟층으로 설정했다. 관광객들에게 수제 초콜릿을 체험·구입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고유의 로컬브랜드로 관광명소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초콜릿 점포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할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과 상인 교육이 시작되며, 앞으로 5년간 초콜릿 관련 공동 브랜드 및 스토리텔링 개발, 특화상품 개발, 여행객 유입 이벤트 행사와 마케팅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상권 활성화 사



업의 일환으로 해남 매일 시장을 비롯해 읍내리와 성내리 상점가를 대상으로 국비 30억원 등 총 60억원이 투입된다.

명현군 군수는 "한반도의 시작인 땅끝 해남의 이미지를 담아 초콜릿 마을이라는 지역브랜드 전략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초콜릿 마을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완도청정마켓, 봄맞이 할인·무료배송 이벤트

전 상품 5% 할인...채널추가·퀴즈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완도군은 1일 "오는 26일까지 농수특산물 소포몰인 '완도청정마켓'에서 '치유의 완도! 봄봄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완도 대표 축제인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개최를 기념해 전 상품을 5% 할인하고 무료배송을 진행한다.

카카오톡에서 완도청정마켓 채널을 추가하면 2천원의 할인 쿠폰을 선착순

으로 증명하며 쿠폰은 1만원 이상 상품 구매 시 사용 가능하다. 추후엔 완도청정마켓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완도 전복과 조미김을 최대 1만원 내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획전을 준비 중이다.

매일 마지막 주 수·목·금요일에는 '청정 Day' 기획전을 통해 최대 10%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카카오톡 채널 추

가 쿠폰과 중복 사용이 가능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군은 초성 퀴즈 이벤트도 마련했다. 이벤트는 1일 1회 참여 가능하며, 정답을 맞출 경우 적립금과 순살 전복을 증정한다.

베스트 리뷰를 쓴 회원에게는 추천을 통해 순살 전복 또는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벤트를 통해 완도의 우수한 상품을 특별한 가격에 만날 수 있길 바란다"며 "소비자와 농어민, 소상공인이 상생하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윤보현기자

영광군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추진"

15일부터 차량 미보유자 대상

영광군은 1일 "오는 15일부터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군민들을 위해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사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은 농기계임대사업소 근무시간 내에 가능하며, 대상자는 차량 미보유자다. 단, 차량 보유자 중 1t 트럭에 농기계 적재가 어려운 중을 임대할 경우, 지게차 없이 상·하차 가능한 자축식 농기계(바퀴 달린 농기계)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자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방문해 농기계를 직접 확인하고 임대·배송료 납부, 안전교육 이수사항 확인, '보령 가입 확인 등 절차를 거친 후 승인·출고



할 수 있다. 배송 신청·예약은 임대일이 틀 전 사전 협의한 장소로 배송된다.

배송료는 '2024년 영광군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운영 배송요금 고시'에 따라 편도 1만원, 왕복 2만원이다.

강종만 군수는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를 통해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농기계 운반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 활력과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무안군, 고령·여성농업인 대상 충전식 분무기·예취기 지원

무안군은 1일 "오는 15일까지 '고령농·여성농업인을 위해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사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은 고령·여성농업인에게 가벼운 충전식 분무기와 예취기를 지원해 농작업의 능률을 향상하고 소규모 경작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된다.

군은 사업비 4천800만원을 투입해 군비·자부담금을 1대1 비율로 구성, 농가당 1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농지를 소유·임대해 농산물 실제 경작하는 고령·여성·중소농업인이다. /무안=김성호기자

신안 새우난초 등 신안지명 자생식물 14종 소개

멸종위기종 보호...자은도 자생식물유지업 영상 전시

신안군은 신안 지명이 들어간 자생식물 14종을 소개했다.

1일 신안군에 따르면 자은도 신안자생식물유지업에서 신안 지명이 들어간 자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다.

흑산도비비추는 1989년 발표된 한국 특산종이며 신안의 흑산도, 홍도, 장도, 가거도에 자생하는 비비추의 일종으로 잎은 반들반들해 광택이 나며, 예쁜 보라색의 꽃이 핀다.

신안군은 흑산도비비추처럼 식물 이름 속 지명과 관련 있는 식물종을 홍보하기 위해 자은도 신안자생식물유지업에 영상 전시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 밖에도 신안지명 들어간 자생식물로 가거누운곶이끼, 가거꼬리고사

리, 가거에가닥나무, 가거개별꽃, 가거양지꽃, 흑산가시나무, 홍도까치수염, 홍도서덜취, 홍도고들빼기, 가거줄사초, 흑산도비비추, 홍도원취리, 신안새우난초, 다도새우난초가 있다. 특히 신안군에만 자생하는 멸종위기종 신안새우난초가 주목받고 있다.

신안 새우난초는 새우난초 속의 식



흑산도비비추 <신안군 제공>

물로 다른 종에 비해 꽃이 비교적 크고 다양한 색상을 띠는 아름다운 식물이다. 그러나 많은 애호가에게 남획의 대상이 돼 개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신안새우난초는 생육 지역이 국내 신안에만 국한되고, 생육 미기후 등이 민감해 멸종에 취약하다.

신안군은 이를 주제로 '신안 멸종위기종' 기획전시를 4월27일부터 3개월간 자은도 신안자생식물유지업에서 개최한다. 이 기획전시는 신안 멸종위기종 실태와 보호 의미를 알리는 전시 기획이다. /신안=양훈기자



신안새우난초 <신안군 제공>

영암군·부여군, 마한·백제문화권 교류 업무협약

경제·문화관광·체육·청소년 분야 등 상생 협력

영암군은 1일 "지난달 29일 군청에서 박정현 부여군수와 '영암군-부여군 우호교류 협약식'을 갖고 상생 발전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

협약식에는 우송희 영암군수, 강찬원 영암군의회 의장, 박정현 부여군수, 장성용 부여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양 도시는 마한과 백제문화권의 교류를 선도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영암왕인문화축제 주무대에서는 '영암군-부여군 우호교류 협약체결 축하공연'이 열려 두 도시의 교류에 의

미터했다.

우송희 군수는 "두 지역은 2천300년 전 함께 '마한'이었고, 2천년 전 함께 '백제'였다"며 "마한·백제문화 공유를



영암군-부여군 우호교류 협약식 <영암군 제공>